

## 광주시·정치권,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 사활

‘실증 벨리 조성’ 등 국비 요청  
기재부 ‘신중 검토’ 판정 빨간불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협조 요청  
“모든 채널 동원해 전방위 설득”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AI 2단계 핵심사업인 ‘혁신 실증 벨리’ 조성안을 올렸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인 ‘신중 검토’ 판정을 내렸다.

AI 2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 투입과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25일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당선 축하행사를 갖고 광주시 11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타면제 등 대한민국 AI 실리콘벨리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무등산 정상 전면 개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다.

올해 말까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는 가장 시급하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 시장은 당선 축하행사에서 각 당선인에게 AI가 그린 히어로 모양의 캐리커처를 선물하며 예타 면제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진 광주시 정책기획관 기획팀장은 “인공지능 중심산업 2단계 예타 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광주의 AI를 활용한 캐리커처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재밌으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알만한 게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 캐릭터이기 때문에 콘셉트도 어벤져스로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선인들은 “광주에 꼭 필요한 숙제를 우선 8명의 당선인이 힘을 합쳐 원팀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한 만큼 경제발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야를 딱지하게 하겠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 21일과 22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AI 혁신 실증 벨리 조성(2025년 요구액 719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5억원)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12억원)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42억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90억원)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일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달빛철도 단 1건에 그쳤다. 특히 AI 2단계 사업의 핵심인 ‘AI 혁신 실증 벨리 조성’과 ‘AI반도체 통합

검증센터 구축’은 ‘신중 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의 불가 판정이다. 이 사업도 통과가 안되는데 예타 면제가 통과 될리 만무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는 AI 관련 18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100여개 기업이 이주한 상태지만, 돈 버는 모델이 없어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서 “AI 2단계 사업이 바로 돈버는 모델을 창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비 지원도 거부하는 마당에 가장 꺼리는 예타 면제를 설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며 “광주시는 모든 채널을 통해 AI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엄수

강기정 시장·김영록 도지사 등 참석  
내일까지 광주서 사진전·산행 행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강 시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있는 시민의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꿈꾸었듯, 우리는 지금의 실천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일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와 함께 광주 경선 승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화운동, 무등산 산행 등 광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담은 특별사진전 ‘광주와 노무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에서 24일까지 연다.

이어 25일 오전에는 광주 동구 중심산 다광장에서 ‘무등산 노무현길 추모산행’ 행사를 연다. 행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7년 5월19일 무등산을 오른 길을 따라 등반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산행코스는 중심사·당산나무·중머리재·용추삼거리·장불재다. ▶관련기사 6면

송민섭 기자 minsu.song@jnilbo.com



조선대 장미원 ‘형형색색 로즈 만개’

광주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조선대 장미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장미를 감상하고 있다. 장미원에는 프린세스 드 모나코, 자몽 드 프랑스 등 226종 1만8000주의 장미가 식재됐다.

광주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조선대 장미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장미를 감상하고 있다. 장미원에는 프린세스 드 모나코, 자몽 드 프랑스 등 226종 1만8000주의 장미가 식재됐다.

나건호 기자

###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 민주역사 골든벨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민주문화제의 일환으로 민주역사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도새기기 위한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13:30-15:00  
**장소** 목포유달중학교 유달관  
**참여학생** 목포유달중학교 3학년 전체  
**진행방법** 개인별 서바이벌 퀴즈 골든벨 대회  
**시상내역** 골든벨 수상자 시상품 제공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주관** 전남서부보훈지청